밝은 태양빛, 번뇌를 지혜로 바꾼다

지혜 · 자비 기본이념 인류 행복 실현한다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새해아침 복(福)을 여는 즈음에 그 가운데 부처님의 진리(眞理)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새해에 복을 여는 것이냐? 집집마다 아이들은 색동옷을 입고 뛰어 놀고 어른들은 사랑방에서 서로 술잔을 건냄이로다.

경자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금일 아침 떠오르는 밝은 태양(太陽)의 빛이 번뇌를 지혜로 바꾸고, 무명(無明)을 깨달음으로 바꾸는 전신(轉身)의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진여법계(眞如法界)에는 만덕(萬德)이 갖추어져 있으니, 수용(受用)과 묘용(妙用)이 자재(自在)합니다.

내가 그대로 우리가 되고, 이기심(利己心)이 그대로 이타심(利他心)이 되며, 아만심(我慢心)이 그대로 자비심(慈悲心)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眞理)를 깨닫고 보면 세간법(世間法)과 불법(佛法)이 둘이 아닙니다.

진리의 광명(光明)은 항상 시방세계를 비추니 나와 남이 원래 없으니 옳고 그름이 원래 없습니다. 밝음 가운데 어둠이 있고 어두움 가운데 밝음이 있으니 밝음과 어둠이 동일체(同一體)입니다.

종교는 인간내면의 정화(淨化)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인 지혜(智慧)와 자비(慈悲)가 정치와 사회의 기본이념이 되어 생명존중(生命尊重)과 인류(人類)의 행복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國民)들이시여!

일상생활(日常生活)하는 가운데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화두(話頭)를 챙기고 의심하면 몰록 '참나' 를 깨닫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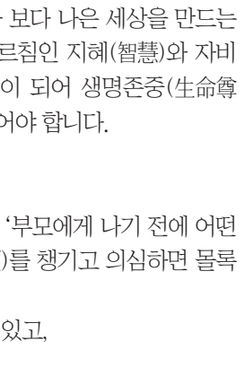
참나 속에는 걸림 없는 대자유가 있고,
참나 속에는 참된 평화가 있고,
참나 속에는 변치 않는 정의가 있고,
참나 속에는 밝은 지혜가 있고,
참나 속에는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필경(畢竟)에 진리(眞理)의 한 마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萬古徽然何處覓(만고휘연하처멱)고.
頭頭物物現古風(두두물물현고풍)이로다.
만년토록 빛나는 것을 어느 곳에서 찾을꼬?
두두물물이 고풍의 진리를 드러냄이로다.

화해와 소통의 새날을

경정 정사
진각종 총인



새해 새날이 밝았습니다.

온 누리에 충만한 대일(大日)의 서광(瑞光)이 중생의 심전(心田)에도 늘 함께하여 화해와 소통의 새날이 항상 하길 서원합니다.

진각(眞覺)의 무진원(無盡願)이 법계에 충만하여 공사(公私)가 바로 서서 진실을 실현하고 세상에 화해가 넘치고 소통이 순조로워서 참회와 용서의 터전이 되기를 서원합시다.

심성은 본래 화해의 궁전이여서 진리와 화해하여 하나가 되고 자기와 화해하여 주인공을 찾아 중생과 화해하여 더불어 살아갑시다.

화해의 기운으로 살면 인생은 안락하여서 화해의 마음으로 느끼면 세계는 만다라요 화해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정토이며 화해의 귀로 들으면 천지는 화음의 자리입니다.

종교가 사법(邪法)을 정화하여 정법를 세우면 정치는 정쟁을 쉬고 정도로 걸어가고 경제는 독식(獨食)을 넘어 풍요를 나누며 사회는 분쟁을 풀어서 화평을 누립니다.

새해 새 세상은 화해의 만다라 중에서 마음 다해 손잡고 수행하며 웃어봅시다.

대립 멈추고 주위를 살핍시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쥐의 해를 맞이하여 희망한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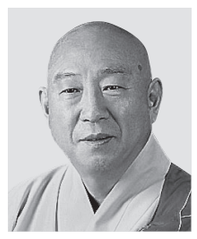
현재 우리는 단절과 소통 부재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의 장벽이 더욱 두터워져 가고 있습니다. 독선과 불통으로 시작된 극한 대립은 멈출 줄 모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새해에는 걸음을 잠시 멈추고 숨을 돌리면서 주변을 살피는 여유를 가집시다. 슬기로운 우리 국민은 어려운 국면일수록 단결하여 지혜와 화합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온 저력이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서로의 행복을 응원하여 온 세상에 부처님의 자비가 현현하는 한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시다.

불자여러분! 기해년 열심히 달려오면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들었는지 돌아봅시다. 새해에는 아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청정한 수행과 성찰을 통해 희망의 새해를 향해 나아갑시다. 자기의 이익만을 찾지 마시고 이웃에게 베풀며 함께 기뻐합시다.

언제 어디서나 주인의 자세를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지난 한 해, 우리 종단은 종단 사상 유래 없는 위기에 직면했고, 국민과 불자, 종도 여러분들 마음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습니다. 원융과 평화보다는 한 사람의 사욕과 잘못된 인식이 한 집단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불러왔고, 혼란과 분열을 일으켜왔는지를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그만큼 경자년 새해는 희망과 기쁨으로 맞이하고 싶다는 소망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가 처한 국내외 상황처럼 작금의 우리 종단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고종도들은 지난 연말 평화로운 총무원사 회복을 통해 그런 능력과 자격이 있음을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어느 종단, 어느 승가 집단보다도 성숙된 승가 의식을 보여줬으며, 수많은 법난을 슬기롭게 극복해온 종단의 힘과 저력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그리고 태고종도 여러분, 이제 그 힘과 저력과 용기로 흰쥐의 해를 힘차게 열어가길 바랍니다. 임제스님께서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이라고 하셨듯이, 언제 어디서나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임할 때 국가도 발전하고 불교도 발전하고 승단도 발전하고 내 삶도 희망과 행복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상생과 화합의 길 밝히자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경자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부처님 자비광명이 온 대지를 밝히고 만 생명을 비추니 곳곳이 불토요 만상에 공덕 아님이 없습니다. 새해에는 사람마다 높은 차원의 복락을 가꾸며 꿈을 성취하고, 사회가 보다 발전되어 인류가 행복하고 만물이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불자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시대의 흐름은 빠르고 세상의 변화는 역동적이어서 자칫 삶의 가치가 흔들리고 사회의 정의가 왜곡되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진심을 다해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하여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고 상생과 화합의 길을 밝혀가야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지혜의 눈을 뜨고 자비의 마음을 열어야 그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의 눈을 뜨지 못하면 날마다 부처를 만나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비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날마다 보살을 마주쳐도 행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연을 심으면 반드시 좋은 과보를 만나는 것이 부처님 일대시교의 핵심입니다. 일체중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먼저 행복의 씨앗을 심어야 하니, 한 번의 좋은 생각이 억겁의 행복을 열매 맺게 하고, 한 번의 착한 행동이 일체중생을 복되게 하는 도리를 사무쳐 깨달아야 합니다.

불자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에는 나부터 선심으로 지혜를 밝히고 나부터 선업으로 자비를 실천하여 시방삼세의 일체중생이 모두 함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성 밝혀 본심을 찾자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경자년 새해, 새 아침입니다. 국가와 국민, 불자들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우리 모두 새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합시다.

새로운 출발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자성을 찾아서 본심으로 밝게 나아가는 큰 걸음입니다. 진취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새해 큰 걸음을 하면서 지혜를 밝히고, 자비행을 실천해 자성부처를 이룹시다.

부처를 마음 가운데서 찾으면 자성부처님이요, 밖에서 찾으면 법신부처님이라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정진으로 맞이하고 순간순간을 도전하는 정신은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이웃과 사회에 감동을 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요, 빛이 됩니다. 벅찬 가슴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밝은 마음으로 새날을 준비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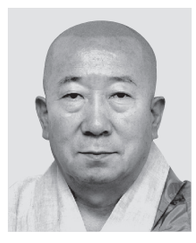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성을 깨달은 사람이며, 자성을 깨달은 사람은 본심이 밝은 사람입니다.

스스로의 허물을 낮과 같이 밝게 볼 줄 아는 자성을 밝히고 본심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당체법문을 바르게 보아 자성을 밝히고 본심을 찾는 생활인이 됩시다. 희망과 기대 속에 맞이한 새해에는 생활이 곧 진리요, 삶의 터전이 곧 보살의 정토가 되도록 정진하고 서원합시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반드시 정착시켜야 합니다.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 경제도 부흥시켜야 합니다. 너나없이 누구나 넉넉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음 그릇을 키웁시다.

부처님 믿고 의지하는 마음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고불동행(古佛同行)' "옛 부처님과 같이 간다"는 뜻으로 이 스님이 불자들에게 책을 선물할 때 자주 쓰는 글귀입니다. 법화경 여래수량품에 보면 부처님은 이 모든 우주의 세계를 생각으로나 계산으로 알아 낼 수 있겠느냐고 법회에 모인 대중들에게 묻습니다. 대중들은 이 모든 우주 세계는 셀 수도 없으며, 마음과 생각으로도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다고 답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헤아릴 수 없는 것같이 부처님께서는 내가 성불한지는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지 겁보다 더 오래 되었다고 말씀하시며, 중생들을 이익 되게 인도하시고, 또 열반에 들은 것처럼 하여 방편으로 중생을 깨우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고불동행' 의 진정한 뜻은 과거, 현재, 미래에 부처님께서는 늘 여러분과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경자년 새해에도 부처님께서는 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이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정진하는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자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한줌의 흙도
마다 않고 끌어안아
높은 태산이 되었으며
한 방울의 물도 내치지 않아
저 넓고 깊은
바다를 이루었으니

작은 선행이 반복되면
인격이 바뀌고
찰나의 불심을 모아
성불의 길로 나아갑니다.

수행자는 정진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며
소박한 진리를 실천하는 이들이 인정받고
정직한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얼어붙은 마음을 풀어
막힘없이 흐르는 가운데
자비로써 서로를 배려하며
국운의 융창과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화합과 성취의 새해를 열어가야 합니다.

실천서원으로 정진을…

법공 정사
총지종 종령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불자와 교도 가정에 부처님의 상서로운 서광이 널리 비추고,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금년에는 가정과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평화와 자비가 넘쳐나고, 고난과 괴로움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지혜로써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를 희망하며, 온 지구촌이 빈곤과 가난, 질병과 고통에서 해탈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이 겪는 고통은 탐욕과 그로 인한 대립과 반목에 기인한다' 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자비심과 보리심을 길러내어야 합니다. 자비심은 발고여락(拔苦與樂)이라 하여 다른 이를 기쁘게 하고 고통을 덜어 주는 것이며, 보리심은 깨닫고자 하는 마음임과 동시에 상대를 자비로써 대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자비심과 보리심을 일언(一言)하야 이타심이라 하며, 그러한 행을 이타행이라 합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불자들과 교도 여러분들에게 자비심과 보리심을 길러내는 수행의 실천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오니 용맹정진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첫째,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한시라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증오와 원망심은 악(惡)의 가장 큰 씨앗입니다. 남을 내 몸과 같이 여기고 이웃을 내 가족과 같이 대하는 마음이 인간의 본성(本性)이요, 그러한 마음으로 산다면 모두가 즐겁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둘째, 나의 몸과 마음을 스스로 청정하게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나의 선(善)에서 출발합니다. 나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 더욱 선(善)한 마음, 건강한 생각, 깨끗한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바르게 서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제를 한 해의 실천서원으로 삼아 정진해 나간다면 불국토에 들어가는 문이 되고, 복전(福田)을 일구는 일대불사가 될 것입니다.

날마다 좋고 좋은 날이오, 달마다 기쁘고 행복한 한 달, 한 해가 되시기를 발원하면서 모든 불자님들과 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훔.